안동문화권 眞城 李氏 들집의 變遷過程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Ddeulzip in Jinsung Lee's Family
at Andong Cultural Area

김 화 봉*

Kim, Hwa-Bong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in the Ddeulzip of Jinsung Lee clan famil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lan family of Jinsung Lee in Andong Cultural Area.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is divided into largely three parts. The establishment process for Jinsung Lee's family is analyzed during early (15~16C) and mid(17~18C) periods, and changing process is analyzed during mid(19~20C) and late periods.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Chosun Ddeulzip is that it made a foundation to construct a Ddeulzip form. Those of mid Chosun period is in their strong will to preserve their ancestral house which is well manifest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Taegye's ancestral house. During the late Chosun period, many of the different styles of Ddeulzip were constructed due to the stable environment of both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The residential house of Jinsung Lee family that were centered in Yean area include diverse forms for both high and middle class social status. Jinsung Lee family's Ddeulzip is thus considered to bring about the firm foundation as a clan family representing the Andong cultural a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Ddeulzip.

주제어 : 들집, 안동문화권, 입향, 분파, 변천

Keywords : Ddeulzip, Andong Cultural Area, the first settle, branched family, change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전통 주거문화가 단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듯이 안동문화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口字形 양반가옥인 들집¹⁾도 오랜 기간을 통하여 형성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안동문화권 들집 형성의 단초와 변천의 실마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들집의 변천과정을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안동문화권의 대표적 씨족인 眞城 李氏의 들집을 대상으로 그 변천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적 소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씨족간의 주거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동문화권의 씨족 중 진성이씨는 退溪 李滉(1501-1570)의 집안으로 안동문화권 문중의 대표적 가문의 하나이다. 진성이씨는 안동문화권에서 가장 넓은 가계라 할 수는 없지만, 퇴계를 중심으로 한 안동문화권의 유교적 특성으로 볼 때 가장 영향력이 높은 가문임은 명확하다. 들집은 안동문화권의 정신적 지주였던 퇴계의 가문에 선택되어 하나의 주거규모로 자리 잡음으로써 안동문화권 상류주거의 유형적 모체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발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안동문화권의 대표적 가문인 진성이씨의 들집을 중심으로 어떻게 형성,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안동문화권 들집의 전반적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woorizip@gntech.ac.kr

본 연구는 2011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중기연구 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들집'은 안동문화권(350여호), 영동문화권(60여호), 경주문화권(30여호)에 분포하는 세 채 이하로 구성된 口字型的 상류주거를 지칭하는 이 지역의 전통적 용어이다.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들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1-2. 연구의 방법

진성이씨의 뜰집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 인류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家系의 가장 정확한 기록유산인 氏族의 族譜를 통해 변천과정을 추적한다.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건축 유구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 가계의 분과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계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뜰집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뜰집 건축 연원을 확인하되 건축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족보의 분과를 통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성이씨 뜰집의 시대별²⁾ 형성과정과 공간적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안동문화권 뜰집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개축되어진 개별 뜰집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형성의 단초만 확인하고, 변천의 분석은 제외하였으며, 주거유형의 입지와 환경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뜰집의 변천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진행은 진성이씨의 계보를 파악한 후, 전기·중기·후기의 시기에 따라 본체가 어떤 연유로 형성되었으며, 시기별로 공간의 구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진성이씨의 문중에는 해방 후까지 25호의 뜰집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 안동댐의 건설로 9호가 멸실되어, 연구대상인 뜰집은 16호(<Tab.1> 참조)이다. 본 연구의 도면자료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도면은 연구자가 작성한 선행 연구의 자료이며, 족보의 조사 및 탐문은 2011년~2012년에 이루어졌다.

2. 진성이씨의 안동 입향과 분파

2-1. 진성이씨의 형성

眞城은 청송군 진보면의 옛 이름이다. 시조 李碩³⁾은

2) 본 연구에서의 시기 구분은 본 연구의 대상인 뜰집의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삼분한 것이다. 즉 조선 전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를 개략적으로 2세기씩 삼분하여, 조선 초에서 임란 이전까지를 전기(15~16C), 임란 후 정조까지를 중기(17~18C), 순조 이후를 후기(19C~일제강점기)로 구분하였다.

3) 李碩은 본래 진보고을의 현리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현리의 신분을 면하고 나서도, 위낙 성품이 공손하여 衙門에서 角聲이 들려오면 열른 마루 아래 내려가 꿇어 엎드렸다가, 각성이 그친 뒤에야 마루로 올라오곤 했는데, 현감이 그를 듣고 자못 미안히 여겨, 각성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겨 살기를 권하매, 청기현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석은 아들 松安君 李子脩가 귀하게 됨으로써 봉익대부 밀직사로 추봉되었다. 송지향, 「安東鄉土誌」 下, 대성문화사, 1983, p.647

Tab.1 List of research

No	List	堂號	家屋主	住 所
1	A1	周村宗宅	李世俊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3
2	B1	溫惠宗宅	李昌建	안동시 도산면 온혜1리 604
3	C1	遇巖宗宅	李俊瑞	예천시 호명면 백송동 203
4	C2		李昌奎	예천시 호명면 백송동 201
5	D1	退溪宗宅	李東恩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
6	E1	樊南宅	李源必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108
7	E2	南泚舊居	李必久	안동시 성곡동 822-4
8	F1	守拙堂	李載寧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18-1
9	F2	響山古宅	李 滄	안동시 안막동 119
10	F3	溪南宅	李源康	안동시 성곡동 729
11	G1	遠村宗家	李在哲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 898
12	G2	參判宅	李泰熙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 732
13	G3		李東彦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 876
14	G4		李章煥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 699
15	G5	恥巖古宅	李源瑋	안동시 안막동 119-1
16	H1		李景衍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319

이곳의 縣吏였다. 대대로 진보현에서 戶長직을 수행했다. 6세손 松齋 李堦⁴⁾(1469~1517)가 중종반정의 공신이 되면서 부친 李繼陽(1424~1488)이 眞城君으로 추증되고, 이때부터 眞城 李氏로 불리게 되었다.⁵⁾ 본 연구에서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안동으로 정착한 入鄕으로 보고, 이후의 계보는 分派로 파악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뜰집이 지어진 계파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의 의의는 고찰에서 배제하였다.

2-2. 진성이씨의 입향 과정

시조 이석의 아들 李子脩(1309生)⁶⁾는 조선이 건국되기

4) 李堦(1419~1517)는 1492년에 생원시에 합격, 1498년에 진성이씨 중에서 처음으로 문과에 급제, 병조·호조 참판, 안동부사,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다 환로(宦路)의 비리를 개탄해 고향에 돌아와 저술과 자질(子姪)들의 교육에 힘썼다. 퇴계의 유일한 스승이다.

5) 정우락, 「안동 퇴계 이황 종가」, 예문서원, 2011, p.16 또한 0안동으로 이주한 이후 진성이씨는 고려조로 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조선조에서 생원시에 76명, 진사시에 47명, 문과에 59명, 음관에 36명, 무과에 1명을 배출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sk.ac.kr>

6) 李子脩(1309~)는 고려 忠肅王때 文科에 及第하여 官은 判典義寺事를 지냈다. 恭愍王때 홍건적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安社功臣에 冊

Tab.2 入郷 家繼

1世	2	3	4	5	6世
碩	子脩	云具			
(松安君, (工曹參議, 體泉派)					
안동磨崖入郷)	云候	禎	遇陽	哲孫	- 주촌과
(軍器副正, 周村입향)	(선산	興陽	(마애로 환거)	- 마애과	
부사)	繼陽	埴		- 은혜과	
(眞城君, 老松亭,					
溫惠입향)	埴				
	(宋齋, 참판)

Fig.1 眞城李氏 入郷過程

9년 전인 1383(고려 우왕9)년에 岐谷(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에서⁷⁾ 왜구를 피해 磨羅村(안동시 풍산읍 마애리)으로 이주하였고, 그의 작은 아들인 李云候가 正統년간(明 英宗代, 1436~1449, 조선 세종대)에 안동시 도산면 주촌리로 이주하여 주촌파를 형성하며 처음으로 기와집(들집?)을 지었다. 이운후의 아들 4世 李禎⁸⁾의 둘째아들 李興陽은 다시 마애로 돌아가 마애파를 이루었으며, 셋째 아들인 李繼陽⁹⁾은 안동시 도산면 은혜리¹⁰⁾로 분가하여 은혜

錄되어 松安君에 封해졌다. 淸肅 眞寶에서 자연풍광이 좋은 안동 풍산 磨崖里에 옮겨 살다가 잦은 홍수로 만년에 와룡면 周村으로 옮겼다. 鵲山祠에 祭享되었다. 송지향, 전게서, p.646

7) 이세준, 「주촌종가연혁」, 경류정, 2007, p.3 송지향의 전계서에는 이자수의 부친이 영양 청기현으로 이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주촌종손 이세준의 자료에는 이자수가 淸肅 기곡에서 안동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종손의 기록에 따랐다.

8) 李禎(생몰년 미상)은 무예에 뛰어나 世宗때 최윤덕의 복정을 도와 毛隣衛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원종훈 이등으로 책록되었고, 世宗 11년(1429) 寧邊鎭(3만명이 동원된 본성과 부속성을 합쳐 둘레 52리, 높이 20척의 관서 제일의 요새)을 쌓을 때 영변관관으로 역사를 맡아 완성하였으며, 한산군수 및 선산부사를 역임했다. 송지향, 상계서, p.647

9) 李繼陽(1424~1488)은 진사였으며, 호는 老松亭, 아들 李埴의 현달로 眞城君으로 추증되어 진성이씨가 시작되었다. 퇴계가 쓴 이계양의 사적을 보면 “공은 처음 부포에 살았으며, 그 후 봉화 훈도로 내

파를 형성하며 두 번째의 들집 기반을 잡았다. 진성이씨의 성립은 은혜로 입향한 이계양이 아들 李埴의 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의 이주는 은혜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성씨의 성립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진성이씨의 전기 정착과정은 세 번의 이주로 볼 수 있는데, 淸肅에서 안동부 마애로, 거기서 안동부 주촌으로, 다시 여기서 예안현 은혜로 이주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주거지에는 진성이씨의 종가가 자리 잡았지만, 안동의 첫 입향지인 마애는 이자수가 만년에 주촌으로 이주하면서 비어있었는데, 거기에 5世 이흥양이 還居하였지만, 들집은 지어지지 못했다.

이 세 번의 이주를 통하여 진성이씨는 세 派가 형성되었고, 도산면의 주촌과 은혜에만 들집이 지어짐으로써 씨족의 장소적 중심이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간의 가장 대표적 인물은 세종대에 선산부사를 역임한 4世 李禎이다. 그는 주촌을 중심으로 한 진성이씨의 사족을 확고하게 한 인물로 不遷位로 모신다.¹¹⁾

따라서 전기 입향과정에서의 들집의 형성은 주촌과 은혜에서 이루어졌고, 주촌 이후로 사족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진성이씨의 분파 과정

중기 이후의 진성이씨의 가계는 은혜의 가계를 중심으로 중흥하게 된다. 은혜 입향조 5世 李繼陽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 李埴과 작은 아들 李埴이다. 이식은 퇴계를 낳았고, 이우는 진성이씨를 창건하도록 하였으니 진성이씨의 성립은 이들 6世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世 이식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 막내가 退溪 李滉(1501~1570)이다. 퇴계는 은혜에서 가까운 남쪽 상계(토계리)로 분가하여 터를 잡았는데, 그 후손들은 거의 인근인 하계(원천리)와 의인(의촌리)에 집중적으로 이주 정착하여 각 계파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이 가장 중심된

왕하던 중 어느 날 은혜를 지나다가 그 산수를 사랑하여 이사했다”라고 되어있다.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부포마을』, 예문서원, 2012. p.171

10) 은혜 입향 이후의 후손들이 주로 사는 은혜리, 토계리, 원천리, 의촌리 등은 조선시대에 예안현에 속했던 곳으로 입향 당시는 예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촌종손 이세준 고종.

11) 퇴계는 은혜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주촌종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주촌종택 앞의 천연기념물 제314호로 지정된 뚝항나무 때문이기도 하다. 이 나무는 李禎이 영변에서 귀환할 때 가져와 심은 것으로, 진성이씨의 최고의 영물이다. 한 뿌리에서 가지가 돌아 넓게 퍼지는 뚝항나무의 특성은 하나의 宗에서 수많은 孫이 퍼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문의 번성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우락, 전계서, p.22~24

Tab.3 分派 家繼

5世	6	7	8	9	10	11	12	13世
繼陽 (溫惠 入鄉, 眞城 君,14 24- 1488)	埴	潛	- 寅	- 宗道	온혜종택			-온혜과
		河	完	- 宗道(출계↑)				
			宏	- 閼道	우암종택			-백송과
			(體泉白松입향)(遇岩)					
		湑	宓					
		濬	寧					
		(溫溪)	喬					
			眞(宜仁입향)					
		澄						
		湜	- 寓	安道	퇴계종택			-상계과
		(退溪,1501-1570, 土溪입향)	純道					-의인과
			詠道	岐	希哲			-하계과
			(東巖,1559-1637)(守拙堂)	克哲	槻			-단사과
					渠			-원촌과
					(遠村입향)			
	遇	壽苓	冲	章道	之醴	雲翼	東標	晦兼
	(宋齋,참판)			(예천출신,懶隱,1644-)				濟兼
								(奉化鹿洞입향)

Fig.2 眞城李氏 分派過程

진성이씨의 딸집 마을을 이루었다. 이 지역은 안동부 예안현에 속하는 지역으로, 퇴계의 후손들은 모두 이 예안에 분파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대부분의 마을이 수몰되고 문화재로 지정된 일부 주택만 이전되었다.

6세 이후의 후손은 예천으로 이주하였지만, 딸집을 지어 남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후손인 12세 李東標(1654-1700)¹²⁾가 예천 금릉에서 태어나 봉화군 춘양면으로 이주했고, 봉화군 법전면 녹동에서 그 후손들이 딸집

12) 이동표는 작은 퇴계로 추앙되는 인물로,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는데, 예천 호명면 금릉리 출신으로 묘는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대에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http://blog.dam.net/pjssn>

을 세 채 지었지만, 한 채가 남아있다.

예천으로 이주한 또 다른 계파는 퇴계의 둘째 형인 李河의 둘째아들 李宏(1515~?)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예천 호명면 백송리로 처가 입향해 그 후손이 백송파가 되었고, 그의 아들 9세 李閼道¹³⁾가 딸집을 지었다.

이로써 퇴계 이전의 선조들이 온혜를 찾아 먼 곳에서 이주해 왔다면, 퇴계 이후의 후손들은 대부분 상계와 하계를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서 밀도 높은 주거영역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근의 안동문화권으로 이주하여 딸집을 지어 계파를 발전시킨 곳도 있으나, 예안지역보다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3. 진성이씨 딸집의 형성과정

3-1. 진성이씨 딸집의 전기(15~16C) 형성과정

고려 말에 안동으로 이주하여 임난 이전인 조선 전기까지 정착한 마을은 주촌, 온혜, 토계, 백송, 의인, 하계 등으로 파악(<Tab.3>참조)되며, 이 시기에 초창된 주거는 주촌종택과 온혜종택 및 우암종택였으며, 이들은 모두 후대의 중창으로 변경되어 원형으로 볼 수 없다.

주촌종택(A1)은 입향조인 이운후가 창건하였는데, 15C 후기에 7세 李璵(1441-1498)에 의해 종가의 서편으로 이건하여 50여 칸의 규모로 건축하였는데, 임진왜란에 화재를 당한 이후, 12세 李曾孝(1630~?)가 원래의 종가 터에 40여 칸의 딸집으로 건축하였다. 8세 李演(1492~1561)은 만년에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정자인 慶流亭을 창건하였는데 후대에 종가 옆으

Fig.3 周村宗宅(A1) 配置圖(圖面 安東文化大典)

13) 李閼道(遇岩, 1538-1591)는 형조정랑, 경산현령 등을 거쳤고, 집 옆의 내성전 절벽에 仙夢臺(퇴계편액)를 지어 후학을 양성했다.

Tab.4 眞城李氏 溫惠派 家繼

3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云候-禎-遇陽-哲孫-堧-演-希顏-庭楡-擘-**曾孝**-邦益-啓眞-台燮-龍瑞-國冀-宇周-亨晚-鎬-棘淵-承杰-容純-載泰-**<世俊>** 주춘중택 A1
(軍器副正, 1441-1498, 50여칸건축)(경류정건축)(1592임난소실)(1630-40여칸재축)
(翼舍증축1929)

周村입향)-興陽-垠-希桐(마애파)

繼陽 埴-潛-寅-宗道-允勉-弘重-希松-聖紹-台珪-廷勳-學靖-鉉禹-晚恁-燦和-炳俊-範敦-晦植-**<昌建>** 은혜중택 B1
(溫惠入郷, 1454초창)
(溫河) 完-宗道(출계↑)
(溫澄) 宏-閔道-鎮南-時馨**奎年** 址-齊斗-宜新-重胤-象德-基周-挺幹-國英-元教-翰鳳-東植-麟熙-重華-繼魯-**<竣瑞>** C1
(體泉白松入郷)(遇岩, 초창1563)(중수1673) 우암중택
鳳年-垠-齊昭-宜伯-聖胤-履德-基升-挺和-鉉英-永教-**翰儀**-東俊-**<昌奎>** C2
(1909-진축1932)

溫澄(溫溪) 必寧喬寅 온계중택(일제에 의해 소실, 복원2010)

溫湜(溫惠入郷, 1501-1570, 土溪入郷) 安道-崐-命哲-吳-**守謙**-世德-龜應-志淳-彙寧-晚喜-中慶-忠鎬-源慇-**<東恩>** 퇴계중택 D1
(상계파) (건축1715) (별당1926, 정침개축1928)

純道-崔-英哲-在建-守曾-世學-龜老 龜天-**同淳**-彙溥-晚胤-中泰-著鎬-源昌-**<源弼>** 변남택 E1
(의인파) (樊南, 參判, 진축)(承旨, 중축1850)
仲淳-彙灝-晚禹-中幹-**<映鎬>**(수물)

梁-守弘-世述-龜朋-秉淳-彙文-晚禧-中錫-達鎬-**<源由>**(수물) E2
(同知中樞府事) 龜錫-保淳-彙震-晚澄-中奕-泰鎬-源啓-東駿-**<必久>** 남편구거
(縣監) 大淳 (1825-弘文館校理) (안동시 성곡동 민속촌 이전)

榮-守恒-世澤-厚淳-彙亨-晚興-中殷-淵鎬-源喬-**<東春>**(병암정, 수물)

世鐸-龜洪-龜大-龜廷-近淳-彙儋-晚輔-中一-性鎬-源興-**<東翊>**(만수당, 수물)

集-守沉-世源-世間-龜溟-謙淳-彙老-晚軼-中弼-述鎬-**<源天>**(수물)

詠道 岐-希哲-樓-守約-世震-龜範-養淳-彙謹-晚愚-中誠-宗鎬-彥求-東旭-必華-**<載寧>** 수졸당 F1
(東巖, 1559-1637, 진축)(守禮堂)(하계파)

世觀-世恒-世師-龜書-祖淳-家淳-彙潛-彙澤-彙潑-晚熹-中業-棟欽-潤惠-**<澄>** 향산고택(안동시 명륜동 이전) F2
(響山, 1842-1910, 진축)

世亨-世榮-世潤-龜宗-啓淳-龜容-彥淳-**<源康>** 계남택(안동시 성곡동 민속촌으로 이전) F3
(단사파) (건축)

克哲-樓-守近-守鋼-世浹-龜東-基淳-彙泰-晚高-中綱-應鎬-源甲-東建-必應-**<在哲>** H1
(遠村入郷) (원촌파) (진축) 龜雲-程淳-彙明-晚器-中杰-觀鎬-源國-東喆-**<泰熙>** H2
(參判)

晚實-晚晉-中立-昂鎬-源鍾-東澤(명실)
晚衡-晚由-中模-寅鎬-源鳳-**<東彦>** H3
彙鉦-晚甲-彙斌-晚徽-中植-家鎬-源祺(육사생가:명실)
彙輔-源祿(육사)
彙煥(출계↓)

朱淳-彙煥-晚瑛-中樂-柄鎬-源潯-東寔-**<章煥>** H4
晚瑛-中參-勉鎬-源崇-東垠-必相(명실)

晚鉉-中古-赴鎬-**<源瑋>** 치암고택(안동시 명륜동 이전) H5
(瓦巖, 1832-1911, 진축)
晚瑾-中台-賢鎬-源綱-東相(명실)

木淳-稷淳-龜星-龜斗-世翕-世習-龜鼎-存淳-孝淳(명실)
世恭

遇-壽苓-冲-章道-之璣-雲翼-東標-晦兼(宋齋, 참판) (懶隱, 1644-, 대사성) 濟兼-重延-鎮奎-漢綺-宜相-得魯-**敦英**-鍾岱-孝洙(명실)
(奉化鹿洞入郷) 重實-重慶-鎮紘-漢永-漢挺(↓ 일가로부터 매입)
漢膺-道相-興魯-敦承-鍾仁-湜(명실)
憲相-崑魯-**敦雨**-鍾國-**<景衍>** I1
(건축1903/증축1923)

로 이전하였다. 이 후 24世 李承杰이 1929년에 翼舍를 증축하여 오늘날의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⁴⁾ 주촌파는 주변에 일가를 이루는 마을을 형성하지 않았고, 獨家村¹⁵⁾의 구성으로 존재한다.

온혜종택(B1)은 5世 이계양(1424~1488)이 15C 중반에 부포에 살다가 봉화 훈도로 내왕하던 중 온혜의 풍광에 반해 이주하여 1454(단종2)년에 건축한 것으로, 어떤 스님이 온혜를 천하길지로 지목하고 장차 명현이 날 것을 예견했다는 설화가 있는 풍수적 길지로 알려져 있다.¹⁶⁾ 이 종택의 특성은 퇴계태실에 있는데, 1454년 초창되었던 것을 1910년 대대적인 개축을 할 때 ‘퇴계의 어머니인 춘천박씨가 몸을 풀었던 그 자리라 하여 온혜종택 정침을 확장하면서 퇴계의 태실을 남겨 두었다’¹⁷⁾고 한다.

Fig.4 溫惠宗宅(B1) 配置圖(圖面 安東文化大典)

예천 백송으로 처가로 입향한 李宏(1515~1573)의 아들 遇巖 李閔道(1538~1591)가 인근 강변에 仙夢臺(1563)를 건축할 때 종가도 같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¹⁸⁾ 이 집도 1673년에 중창하고, 1800년경에 개축하였으므로 원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성이씨가 입향 및 분파한 전기의 종가는

14) 주촌종택 종손 이세준 고증. 초창이 어떤 구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50여 칸의 규모는 뜰집의 건축을 낳게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략 봉화의 쌍벽당 정침(뜰집, 1450경) 및 양동마을의 서백당(뜰집, 1484년 건축)과 유사한 시기의 건축으로 뜰집의 유형적 가능성을 가진 평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5) 독가촌은 그 집 주인을 존경하여 후손들이 인근에 건축을 꺼렸기 때문이다. 강릉 선교장, 해남 녹우당 등이 그 예이다.

16)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전계서 p.171 복원은 1910년에 중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태실의 유형적 근거는 매우 특이한데, 원래 작은 방형의 주거에서 상만인 태실의 공간을 보존하고, 두배의 크기로 증축하여 이와 같은 형상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 정우락, 전계서 p.22

18) 우암종택 종손 이준서 고증. 선몽대의 휘호는 퇴계 친필.

세 채 있으며, 모두 후대에 재건축된 것이다. 초창의 유형은 알 수 없지만, 원재의 터전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기반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3-2. 진성이씨 뜰집의 중기(17~18C) 형성과정

진성이씨의 조선 중기의 뜰집 건축과정은 크게 토계의 분파를 이룬 7世 퇴계 이후 예안에 정착한 가계와 예천으로 이주해 간 6世 李堦 및 8世 李宏의 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퇴계는 상계(토계리)에 자리 잡고, 상계에서 9世에 의인파와 하계파가 분파하고, 11世에 하계에서 원촌파가 분파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기에 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가의 중수라 할 수 있다. 이미 입향한 지 200여년의 세월이 지났고, 가세의 규모도 커졌으며, 유교적 봉제사의 규범에 맞는 종가의 건축은 퇴계의 가문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촌종택과 우암종택의 중수 및 퇴계종가의 이전으로 잘 알 수 있다. 7世인 퇴계는 분가하여 큰 집 아래인 온혜의 남쪽에 터전을 마련하였지만, 번잡함을 피하여 주변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좁은 협곡의 지형인 토계에 서실로 養眞菴(하계 부근)을 마련하였었는데, 벼슬길에 올라 떠나 있다, 50세에 돌아와서는 그 인근인 현재의 종가 터에 작은 집을 지어 寒栖菴이라 했다. 퇴계 사후에 分財하여 토계의 터전은 외손에게 물려주고, 아들들은 도산서원 맞은편의 마을인 부포의 넓은 지형을 물려주어 이전하였다. 150여년 뒤, 도산서원 원장으로 온 權斗經(1654~1726)이 도산서원 인근의 원 종가 터에 후손이

Fig.5 退溪宗宅(D1) 配置圖(圖面 安東文化大典)

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종손 13世 李守謙과 논의 하여 1715년에 원래의 종가 터에 퇴계종택(D1)을 짓고, 별당으로 5칸의 秋月寒水亭을 더해 종손을 이전하게 했다. 그러나 일제의 방화로 추월한수정이 불에 타자, 1926년 尙州에서 道會를 열어 전국 450여 문중이 기금을 모아 1928년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별당을 건축하고 종가를 개축하여 현재의 장원이 이루어졌다.¹⁹⁾ 퇴계종택도 주촌종택과 마찬가지로 독가촌을 형성한다.

9世 李純道는 토계의 낙동강 건너 의인마을에 분파하여 파조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조선중기에는 뜰집의 건축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의 동생인 9世 李詠道(東巖, 1559~1637)는 상계에서 하계로 분가하면서 수졸당을 지었고,²⁰⁾ 퇴계의 묘소가 있는 입구에 위치한다. 퇴계를 큰 스승으로 모시고자 한 후손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중심이 되어온 守拙堂은 현재 남아있는 진성이씨의 가장 오래된 뜰집이다.

12世 李槩는 낙동강 인근 상류쪽 원촌으로 이주하여 원촌파를 형성하였다. 그의 손자가 18C말에 원촌종가로 뜰집을 건축했다.

조선 중기에 신축된 진성이씨 뜰집의 사례는 수졸당과 원촌종가 뿐이지만, 진성이씨 종가의 맥이라 할 수 있는 주촌종택의 개축, 퇴계종택의 신축, 우암종택의 개축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볼 수 있다.

3-3. 진성이씨 뜰집의 후기(19~20C) 형성과정

1715년의 퇴계종택의 移轉으로 진성이씨의 토계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은 인근 의인과 하계마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조선 후기에 학문적 중흥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벼슬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했다.²¹⁾ 그로 인하여 뜰집의 건축이 활발해졌는데, 특히 19C에 많이 이루어졌다. 의인파는 7호의 뜰집을 지었고, 하계파는 13호의 뜰집을 지었다.

19) 정우락, 전거서, p.31~33

20) 동암의 아들 李岐(守拙堂, 1591~1654)는 사랑별당으로 수졸당을 지었는데, 사랑채의 이름이 이 집의 대표적 명칭으로 통용되지만, 동암고택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수졸당 종손 이재령 고증.

21) 진성이씨 중에서도 퇴계의 후예가 가장 번성하여 문행과 과신이 이어져서 문과 출신자 32명을 배출하였다. 퇴계의 손자 이안도(李安道, 1541~1584), 이영도(李詠道, 1559~1637) 형제를 시작으로 이수연(李守淵), 이세사(李世師), 이세운(李世胤), 이귀운(李龜雲), 이야순(李野淳), 이태순(李泰淳), 이가순(李家淳), 이휘령(李彙寧), 이만용(李晩容), 이중두(李中斗) 등으로 대를 이어 가학과 벼슬을 이어왔고 한말 일제강점기에는 경술국치를 당하여 단식 순국한 이만도(李晩燾, 1841~1910)를 비롯하여 이중언(李中彦), 이중업(中業), 이동봉(李東鳳), 이육사(李陸史, 1904~1944, 본명 이원록) 등 30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다. 디지털 안동문화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

의인에는 퇴계의 손자 9世 李純道가 이주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번창하였다. 의인파의 대표적 인물은 16世 李同淳²²⁾으로 그는 영남에서 드물게 참판에 오른 대표적 행정관료이다. 그가 건축하고 손자인 18世 李晩胤가 증축한 번남택은 서울 창덕궁을 모방하여 99칸으로 건축했다²³⁾고 하는 진성이씨의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주택이었지만, 6.25동란에 파괴되어 현재 50여 칸만 남아 있다.

의인마을에는 총 7호의 뜰집이 지어졌지만, 안동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어, 지대가 높은 번남택만 원래의 자리에 남았고, 南泐舊居²⁴⁾는 안동댐 민속촌으로 이전해, 겨우 두 채만 남았다. 이 남반구거는 홍문관 교리를 지낸 이만형(李晩滢, 1825~?)이 19C 후반에 건축하였다.

수졸당 후손들은 하계파로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하계도 안동댐으로 거의 수몰되었다. 수졸당도 이전하여 원래의 위치보다 조금 언덕으로 옮겼다. 또 15世 李龜容이 1800년경에 건축한 溪南宅은 1975년 도산면 단천리로 이전하였다가 2008년에 안동시 성곡동의 민속촌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또 경술국치에 자결한 순국선열인 18世 李晩燾(響山, 1842~1910)가 하계에 1880년대 후반에 건축한 향산고택은 안동시 명륜동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하계파의 뜰집은 수졸당을 비롯하여 3호가 남아 있다.

12世 李槩(1681~1761)는 수졸당에서 분가, 원촌마을로 이주하여 입향조가 되었는데, 그의 손자 15世 李世翺이 18C초에 뜰집을 건축했다. 원촌파는 조선 후기의 많은 선비도 낳았지만, 구한말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원촌에는 조선 후기에 모두 10호의 뜰집이 있었지만, 안동댐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 마을에는 3채만이 남아있고, 1채는 안동시 명륜동으로 이전한 치암고택이다. 원촌에 종택과 함께 마을을 지키고 있는 뜰집은 1850년경 건축된 이동언가옥과 원촌종택과 평면이 거의 유사한 참판택이 남아있다.

22) 이동순(1779~1860)의 호는 번남(樊南)이다. 1807년(순조 7) 문과에 급제한 이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군위현감(軍威縣監) 등을 역임하고, 호조참의(戶曹參議)·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및 우승지(右承旨)·형조참판(刑曹參判)·병조참판(兵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동지부사(冬至副使)로 북경에 다녀온 후, 호조참판(戶曹參判)·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올랐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sk.ac.kr>

23) 디지털안동문화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

24) 남반구거는 이만형(李晩滢, 1825~?)이 건축한 것으로 그가 홍문관교리를 지냈기 때문에 교리택(校理宅)이라고도 하였다. 그의 호를 따서 남반구거(南泐舊居)라고 부른다. 1877년(고종 14) 품계가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올라 홍문관교리와 지제교(知製敎)·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등의 벼슬을 겸직하였다. 디지털 안동문화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

Tab.5 List of building process

番號	記號	堂號	家屋主	初創 (□, ■)	重創(■) / 増改築 (◎)	전기 (15-16C)	중기 (17-18C)	후기 (19-20C)
1	A1	周村宗宅	李世俊	15C中半	1592(燒失) / 17C中半(重創) / 1929(増築)	□ ×	■	◎
2	B1	溫惠宗宅	李昌建	1454	1910(重創)	□		■
3	C1	遇巖宗宅	李俊瑞	1563	1673 / 1800	□	■ ■	
4	C2		李昌奎	1932				■
5	D1	退溪宗宅	李東恩	1715	1926(別堂建築), 1928(正寢重創)		□	■
6	E1	樊南宅	李源必	19C前半	1850(増築)			■◎
7	E2	南泐舊居	李必久	19C後半	1976(의촌에서 현 위치로 移建)			■
8	F1	守拙堂	李載寧	17C前半			■	
9	F2	響山古宅	李 滄	19C後半	1976(토계에서 현 위치로 移建)			■
10	F3	溪南宅	李源康	19C前半	1976(移建)/2010(토계에서 현 위치로 移建)			■
11	G1	遠村宗家	李在哲	18C後半			■	
12	G2	參判宅	李泰熙	19C前半				■
13	G3		李東彦	19C後半				■
14	G4		李章煥	19C後半				■
15	G5	恥巖古宅	李源瑋	19C後半	1976(원촌에서 현 위치로 移建)			■
16	H1		李景衍	1903	1923(増築)			■

진성 이씨 중에서 가장 먼저 문과에 급제하고 판서에 이르러 관향을 제수 받게 한 6세 李堦의 후손은 예천 명호면 금릉리로 이주하였는데, 12세 李東標(1654-1700, 대사성)가 다시 봉화로 이주했고, 그 후손이 녹동으로 입향해 딸집을 3호 지었으나 현재는 1903년에 건축한 1호만 남아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진성이씨는 퇴계를 구심점으로 삼아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많은 딸집을 건축하였다. 또한 온혜종택의 개축과 퇴계종택의 개축도 중요한 민족건축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4. 진성이씨 딸집의 변화과정

4-1. 진성이씨 딸집의 전기(15~16C) 변화과정

진성이씨가 안동으로 입향한 이후의 딸집의 건축과정은 명확히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다만, 현재의 구전된 내용에 근거하여, 초기에 건축된 딸집인 주촌종택(15C 전반 50여 칸 건축)과 온혜종택(1454년 입향 시 건축) 및 우암종택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추측은 본 연구에서는 유보하고, 초기의 건축을 후대에 증축한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모두 중기 이후의 건축이므로 이때의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주촌종택이 초창된 시기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딸집인 경주 양동마을의 서백당(1484년 이전 건

축)의 건축시기보다 빠른 것으로, 주촌에서 분가한 5세 繼陽이 온혜종택을 입향하면서 건축하였다는 1454년경이다. 또 안동문화원에서 가장 오래된 봉화 쌍벽당(1450년 건축, <Fig.6>참조)의 건축과 연관해 볼 때 충분히

Fig.6 奉化 雙壁堂 平面圖

히 딸집의 건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그 원형이 남아있지 않아 원래 딸집이었는지의 의문은 차후 해소될 자료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건축된 진성이씨의 세 종택(주촌, 온혜, 우암)은 안동문화권 딸집의 원형을 보여주는 주택이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 진성이씨 딸집의 중기(17~18C) 변화과정

중기의 진성이씨 딸집의 발전은 전기의 잠재기를 거쳐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행했던 것은 종가의 증축이었다. 화재로 소실된 주촌종택을 17C 중반에 증창한 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18C 초에 퇴계의 종가를 이전 건축한 일도 이러한 保宗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Fig.7 守拙堂(F1) 平面圖

이보다 먼저 17C 전반에 건축된 수졸당(F1)은 현재 남아있는 진성이씨

塍집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사례이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塍집으로 알려져 있는 경주 양동마을의 서백당(1480년 이전 건축)과 거의 유사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기의 유형적 맥락을 보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창(17C 중반)된 주촌종택(<Fig.3>참조)은 안방이 마당의 전면으로 나오게 구성²⁵⁾ 구성되어 있는데, 제청으로서의 경류정이 없었다면 종가로서는 당연히 제사 공간을 위한 안마루가 수졸당과 같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1673년에 중창된 우암종택과도 비슷한 유형이다.

Fig.8 愚巖宗宅(C1) 平面圖

그러나 종손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새로 건축한 퇴계종택은 상당한 규모의 유형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남아있는 퇴계종택(<Fig.5>참조)은 1928년 중창한 것이지만, 안채의 구성은 거의 원래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안마당의 폭을 4칸으로 넓히고, 안방과 안마루의 규모를 각각 2칸으로 구성하였다. 방의 기능성이 마당의 전면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이미 안마루의 기능성이 변화하여 생활공간으로서의 개념이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25) 塍집의 안채유형은 안채구성은 ‘부엌-안방’의 구성이 수평이면, 영남형(혹은 민가형), 수직이면 중부형(혹은 서울형)으로 구분(선행연구 전게서, pp.87~89 참조)하는데, 塍집에서는 이것의 의미는 규모에 따른 기능적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 있다. 이들 주촌종택(A1), 우암종택(C1), 퇴계종택(D1)은 모두 안마당의 폭으로 안방이 진입하여 기능적 편의성을 확보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세 종가에서는 조선 전기의 의식적 공간성은 줄어들고, 모두 기능성을 반영한 塍집의 변천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선 중기의 塍집은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되었다. 실학사상의 반영으로 방형의 공간이 주는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의 다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유형(분리형 塍집²⁶⁾)으로 변하면서 상류의 정형성은 중류 계층의 실용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일시에 건축하기 어려운 경제적 한계도 극복하고, 안마당에 일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로 원촌종택(G1)을 들 수 있는데, 분리형 塍집으로 구성된 이 유형은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을 분리시킴

Fig.9 源村宗宅(G1) 平面圖

으로써 건축의 시기적 융통성과 환경의 쾌적함을 동시에 이루어 내면서도 안마당의 폐쇄성은 거의 잃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유형은 많은 소규모 塍집의 경우에 이루어진 증축의 개념을 구성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중기의 塍집은 기본형을 유지하는 보수적 구성도 있지만, 기능적 편의성을 수용한 근대적 주거개념이 적극적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4-3. 진성이씨 塍집의 후기(19~20C) 변화과정

19C에 들어서 괄목할만한 변화는 많은 塍집의 건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의 대두와 이모작 농경의 보급 및 堤防 및 水利灌溉농법의 발전에 의한 경제적 호재에 기인하겠지만, 진성이씨의 정계진출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塍집의 공간적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계층의 구분²⁷⁾

26) 塍집의 본채 배치유형은 완결형, 연결형,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 pp.63~70 참조

27) 塍집의 계층구분은 이미 최일(「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조선 후기의 계층을 세도가층, 향반층, 지주층, 부농층으로 구분했으며, 塍집에서는 지주층과 부농층을 구분하기

이 형성되었다. 19C 전반에 건축된 이루어진 대표적 가족으로 계남택과 번남택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규모의 뜰집으로 세도가층에 해당한다.

계남택(F3)은 번남택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지만, 공간의 경향은 전혀 다른데, 계남택은 본체의 구성에서 방형을 유지하면서 가장 규모 큰 다섯칸 폭의 안마당 형식이다. 이 유형은 뒤에 퇴계종택이 건축될 때, 몸체의 형식과 안채의 구성이 거의 유사하게 적용된 규범적인 평면이라 할 수 있는데, 봉화지역에 많이 성행된 20C 초반의 뜰집유형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10 溪南宅(F3) 平面圖

이에 반하여 번남택(E1)은 참판을 역임한 13세 이동순이 건축한 연결형 뜰집으로, 일반적인 뜰집선의 규범에서 벗어나, 규모나 공간적인 면에서 모두 조 후기 주거의 최고의 건축적 성과라 할 수 있는 주거유형이다. 세 개의 중정을 기반으로 안채와 사랑채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행랑공간의 융통성과 남향으로 앉은 사랑공간의 환경적응성 및 배산임수를 택한 안채의 위계성은 다양한 공간을 포괄한 기능이 함께 잘 조화되어 전체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중정형 주거라 할 수 있다. 가전으로 전해지는 ‘경복궁을 닮은 주거’라는 설명은 안동에서 일반적으로 규모 큰 주거에 붙여지는 유형적 개념으로서 왕족의 주거인 궁집²⁸⁾의 규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지역색을 벗어나 전국 규모의 대표적 주거를 지향했다는 자부심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려웠다(p.80)고 기술했다.

28) 궁집은 왕족을 위해 지은 사가로 운형궁(대원군), 남양주 궁집(화길옹주), 추사고택(화순옹주) 등 약 7호가 남아 있다. 주남철 『궁집』, 일지사, 2003

Fig.11 樊南宅(E1) 平面圖

또한 씨족의 가계가 확장되면서 뜰집의 건축이 활성화 되는데, 특히 하계에서 분파한 의인, 원촌마을이 발달하였다.

의인마을에는 번남택을 중심으로 7채의 뜰집이 건축되었는데, 현재는 번남택만 자리를 지키고, 마을이 수몰되었지만, 뜰집의 다양한 건축을 남겼다.²⁹⁾ 그 중 안동댐 민

Fig.12 南泚舊居(E2) 平面圖

하계마을에서는 수졸당(F1)-계남택(F3)-향산고택(F2)의 순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향산고택은 분리형 뜰집의 또 다른 사례로 소규모 뜰집의 유형을 제시한다. 안마당의 폭에 방의 면적이 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행사를 수용할 공간이 축소되었으며, 안마루에서 바로 출입이 되는 도장방의 구성은 수장 공간의 비중이 확장된 것이며, 채 분리

29) 울산공대 건축학과, 「안동댐 수몰지구 취락형태 현지조사」, 1976

Fig.13 響山古宅(F2) 平面圖

Fig.14 李東彦家屋(G3) 平面圖

Fig.15 恥巖古宅(G5) 平面圖

에 의해 건축 시기를 분리하여 비용을 분산하는 등 소규모 자본의 富農層 주거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가계의 규모에 따라 주거의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계마을에서 분파한 원촌마을은 조선 중기에 이미 분리형 뜰집을 제시하였을 정도로 소규모화된 주거형태이지만, 9채의 뜰집을 건축하면서 조선 후기의 반촌으로서의 구성을 명확히 이루어낸 마을이다.

이동인가옥(G3)은 안채의 구성은 전통적인 중부형(수직형) 안채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채로의 출입이 전면에서 측면으로 완전히 바뀐 근대적 유형의 결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치암고택(G5)은 안채의 규모는 작지만, 사랑채의 기능이 확장된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반가의 위엄을 지키려고 한 향반층 주거의 구성을 살필 수 있다.

예천으로 분파한 6世 이후의 후손 중 봉화로 이주한 계파는 녹동마을에서 뜰집을 건축하는데, 이는 안동문화권의 포괄적 뜰집에 속하기는 하지만, 안동과의 밀접한 유형적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경연 가옥(H1)은 경사진 지형에 맞추어 一자형의 안채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익랑을 건축한 봉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몸채 유형으로 구축되었고, 안채와 사랑채

Fig.16 奉化 李景衍家屋(H1) 平面圖

에 모두 개방적인 빗마루와 폐쇄적인 마루방을 이중으로 구성해 추운 산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형적인 봉화지방의 유형인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조선 후기에는 대규모 공간과 소규모 공간의 유형으로 이분되어 예안의

상계, 하계, 의인 그리고 원촌으로 분파하면서 뜰집의 유형이 하나의 정형으로부터 많은 변형을 낳게 되었는데, 이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유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는 유형적 보고라 할 수 있다.(〈Tab.5〉참조) 그러나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봉화나 예천 등의 타 지역으로 이주한 일족은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는 뜰집을 건축하는 적응성 혹은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뜰집은 전국적인 영역으로 볼 때 매우 좁은 지역에 집중적인 밀도를 가지는 주거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이 한 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외적요인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내재적 중심성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안동문화권 진성 이씨의 뜰집은 이러한 내재적 규범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라고 할 수 있다.

안동에 정착한 진성이씨는 예안을 입향의 종점으로 삼아 퇴계 이전에는 원거리 이주를 하였고, 퇴계 이후는 근거리 이주를 하면서 예안의 상계(토계), 하계, 의인, 원촌 등의 마을에서 집중적인 씨족 마을을 형성하며 뜰집을 건축했다. 일부 타 지역(예천, 봉화)으로 분파한 계파는 뜰집을 많이 건축하지는 못했다.

진성 이씨의 뜰집 변천과정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기(15~16C)의 진성 이씨는 안동에 정착하면서 사림으로서의 기반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사대부가로서의 주거유형으로 뜰집을 선택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대의 증개축으로 원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Tab.6 List of Jinsung Lee's process of Ddeulzip

그 원형적 유구는 알 수 없다. 이 때 건축된 주촌종가로 부터 온혜종가로 이어지는 퇴계가문의 종가는 뜰집의 원형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기(17~18C)의 진성 이씨는 퇴계의 종가를 복원 함으로써 문중의 중심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임난의 화재로 소실된 주촌종택의 재건축과 퇴계종가의 신축 등으로 진성이씨 문중의 구심점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분파의 파종가들이 건축되며 문중의 저변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미 뜰집 유형의 다변화가 시작되어 가계의 구성과 규모에 맞는 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3. 후기(19~20C)의 진성 이씨는 관계진출의 길이 열리면서 많은 문과 급제자를 낳게 되고, 고향에 돌아와 후학양성과 건축경영에 힘을 써, 뜰집의 건축이 활성화 되었다. 그 결과 실학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유형의 뜰집이 건축되어 안동문화권의 뜰집의 유형적 寶庫 역할을 했다. 이는 규모가 큰 뜰집의 유형에서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뜰집의 유형에서도 다양한 실용적인 공간을 건축함으로써 뜰집의 공간적 변화를 잘 발전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진성이씨의 뜰집은 전기의 정착기와, 중기의 발전기 및 후기의 중흥기를 거치면서, 뜰집의 유형적 지속성과 다변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중을 중심으로 하나의 주거유형이 형성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안동문화권에서 진성 이씨가 형성한 뜰집의 변천을 보면 강력한 내재적 중심성이 그러한 유형적 지속성 및 다변성을 유지하도록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의 구심점은 퇴계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퇴계의 정신이 깃든 주거의 보존 및 발전이야 말로 안동문화권 진성이씨의 주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성 이씨는 안동에 정착하여 신진사립으로 자리 잡고 사족을 대표할 주거유형으로 뜰집을 선택하였고, 퇴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후손들이 뜰집을 선호하여, 이를 발전, 변화시킨 주역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1. Jinsung Lee's Great Genealogy Compilation Committee, 『Jinsung Lee's Great Genealogy』
2. Song, Ji Hyang, 『Andong Local History』 1, 2, Daesung Moonhwasa, 1983
3. Ulsan Institute of Technology, Dep. Architecture, 「A Surve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Two Villages near

An-Dong」, 1976

4. Choi Il, 「A Study on the Middle and Upper Class Residence of Cho Sun Dynasty in Southern Korea」, Ph. D.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9
5. Kim, Hwabong, Cho, Sunggi, 「A Study on the Time Gap-Building of the 「Ddeulzip」 in the Cultural Area of Ando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Vol. 14 No. 4, (April 1998) p.p.141~150.
6. Kim, Hwabong, Cho, Sunggi,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deulzip」 around Andong Cultural A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Vol. 14 No. 11, (November 1998), p.p.191~200.
7. Kim, Hwabong, 「A Study on the 「Ttüljip」 around Andong Cultural Area in Chosun Dynasty」, Ph. D.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9
8. Kim, Hwabong,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Ddeulzip on Omi Village in Andong and Oroch Village in Bonghw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13 No.3 (September 2004), pp.51~67.
9. Joo, Namchul, 『Goongzip』, Ilgi Sa, 2003
10. Youn, Lily, 「A Study on the Changes of Architectural View of the Sangju academic clique of the Taegae School」,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13 No.3 (September 2004), pp.85~95.
11. Andong Culture Institution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Yechon Gumdangsil & Matgil Village』, Yemoon Seowon, 2004.
12. Andong Culture Institution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Gail Village』, Yemoon Seowon, 2006.
13. Andong Culture Institution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Moosil Village』, Yemoon Seowon, 2008.
14. Andong Culture Institution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Wonchon Village』, Yemoon Seowon, 2011.
15. Jung, Woorack, 『Andong Taegae Lee Hwang Main Family House』, Yemoon Seowon, 2011

접수(2012. 10. 15)

수정(1차: 2012. 12. 18, 2차: 2012. 12. 28)

게재확정(2012. 12. 31)